**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고국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며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영혼들의 영적 상황을 나눕니다.

오래 기도하고 있는 에이치 부인 가정은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셋째 딸 뒷바라지로(수영 선수) 바쁘다가, 변호사인 큰 딸이 직장에 복귀하면서 손자를 보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돌 지난 아이가 대화의 중심입니다.

엔은 신혼인데(지난해 7월 결혼) 집들이를 갔더니, 부유한 친정의 배려로 집을 사고 축의금으로 남편의 차도 구입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집 화장실 수리를 하려고 기술자를 불렀는데 제가 혼자인지라 엔과 친정 어머니가 와 주기로 했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부탁할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와 주는데, 회교 배경이 강한 친정과 시댁, 엔은 복음으로 교제가 발전하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유 부인은 지난해 가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한식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기도편지에 유 부인의 직장이 낙태전문 산부인과라고 기도제목을 나눴는데 응답에 감사합니다. 유 부인은 사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딸 하나를 변호사로 잘 키웠고 딸이 한류 팬이라 딸이 좋아하는 한식에 배워서 한식경연대회에서 2등만 3번을 했습니다. 저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동역자님들은 기억하시고 직업적인 전문성으로 제자를 양성하듯이 영적으로도 제자 삶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에이는 오래 동안 한식을 배웠고 지난해 한식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서 초청받아 1주일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매일 저의 집에만 오다가 지난 주일 드디어 처음으로 에이의 집을 방문해서 남편과 아들(17살)과 딸을(13살) 만나면서 교제하는데 저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열심은 있지만 자신의 종교에 대한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 학교에 다니면서 관련된 일을 하고자 실습 중인데 앞으로의 교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집을 이사하면서 했던 사역계획들은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해서 입국하고 제가 수술 받고, 이곳의 몇몇 한국인 불신자들이 한국과 이곳 정부에 한 투서 사건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올해 사역 계획을 주께 맡기는 기도제목을 보냅니다.

지난 5월에 한식세미나를 했던 대학에서 교수들이 한국의 초청으로 한식을 수강하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식 관련 서적 출판 준비를 하는데 저도 참여 제의를 받았습니다. 지경을 넓히시려는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 복음과 영적인 사역에 관련되지 않는다면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주의 관점과 물질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아 교회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마5장의 산상수훈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의 다림줄이기를 소망하며, 동역자님들과 전 세계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깨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저는 치통으로 고생하다 오른쪽 위의 제일 안쪽 어금니를 하나 빼고, 잇몸이 많이 약해지고 흔들리면서 시린 오른쪽 위의 송곳니와 아래 앞니 하나도 흔들려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않아 여성회관(1년 회비 3만원)에서 운동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는 계기도 되도록 일정을 무리하지 않게 잡고 있습니다.

1월말에 새롭게 시작한 한식 강좌에서 마음 밭이 좋은 영혼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또한 오래 교제했던 사람들 중에서 주일에 정기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생인 에이, 유치원 교사인 이웃……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한 영혼을 위해, 예수의 제자가 되는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성령께 평범한 일상과 초대하고 방문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오늘의 모든 삶이 기도이기를 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저의 어머니는 셋째 여동생 집에서 조금씩 회복하여 부드러운 음식을 씹어서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침상에서 꼼작 못하지만 말에도 힘이 생겼는데, 언제까지가 될 지 모르지만 수고하는 자매들에게(특히 셋째 여동생은 직장도 그만둠) 평강과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던 담당자가 사정이 생겨서 오랫동안 편지를 받아보지 못한 동역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이메일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이 없는 분들을 위해 편지를 발송해 줄 자원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후원해주신 재정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리며 후원금 입금현황을 정리하여 함께 보냅니다. (입출금현황은 지출을 10월부터 영수증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부지런히 정리하여 다음에 동봉하겠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한 구원을 많이 묵상하게 한 몇몇 일들을 통해 잠잠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성령으로 치유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이사야 40장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희망의 말씀을 나누며,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동역자님께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안 하십시오.

 2018. 2. 9. 김에스더 드림

(이메일 주소는 공주 사무실 041 853 9182 멤버 케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남겨주세요)